

高麗의 官學과 孝經

全 準 雨*

I.

高麗는 特別히 成宗때에 와서 孝子 順孫을 자주 표창하고, 六道에 遣使해서 老弱者의 飢離와 鰥寡의 窮乏者를 賑恤하는 敎書를 자주 내려 이들에게는 免役 授官 賜穀등 儒敎的인 施策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儒敎的 施策은 그때마다 그 趣旨를 담은 詔, 敎書를 내린 바가 麗史에도 상세하지만 이는 集權化에서 요구되는 忠이나, 家族制의 社會構造 形에 대응된 孝를 軸으로한 倫理的 질서의 확립을 目標한 것인 同時에 모두 周, 孔의 風과 經典에 典據를 두고 실시한 儒化정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儒敎的인 施策은 高麗가 儒敎的인 國家體制로 定立하기 爲한 理念의 確立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理念確立은 孝를 礎石으로하는 治者의 敎育에서만 可能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이 論文에서는 高麗의 敎育機關의 維府인 國子監에 孝經이 共通必須로 되어있음에 留意해서 이 孝經을 通한 和合精神은 高麗의 集權化體制를 이루는데 큰 役割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儒敎的인 仁政도 可能해서 諸種의 拔擢도 이루어졌다고 믿어, 孝經의 根本思想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高麗의 종합大學인 國子監이 設置되기는 成宗때의 일이고, 그 뒤 仁宗때에 와서 京師六學이라고 하여 國子監에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書學 算學 등 일종의 單科大學이 정비되었고, (1) 따라서 學科目도 일단 정비되었던 것이다. 國子學 太學 四門學은 學科別의 원칙에서 區分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그 入學하는 학생들의 身分을 제한하기 위해서였고, 그 나머지는 學科目이 다른 技術學校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직도 高麗라는 社會가 貴族을

* 暎星女子大學 圖書館 司書課長

(1) 李基白, 韓國史新論(一編閱), p. 139.

2 도서판략 논집

中心으로 하는 소위 貴族社會라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²⁾

그러면 여기서 貴族의 子弟만이 入學이 허가되는 國子學 太學 四門學은 어떠한 교과과정이 짜여져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는 仁宗때에 마련된 學式에 비교적 상세한 것이 보인다. 즉 教養必須의 共通科目으로 孝經과 論語가 들어있고, 그 다음 各己 전공科目으로 周易 尚書 周禮 禮記 儀禮 毛詩 左傳 公羊傳 穀梁傳등의 9經이 課해져 있다.

또 이 밖에 算數와 時務策을 겸수케했고, 여가를 利用해서 매일 한장의 習字을 익히고, 國語 說文 字林 爾雅를 읽도록 되어있다.⁽³⁾ 이러한 學式은 勿論 高麗의 國學에서 따왔고 또 新羅는 唐의 學制를 본뜬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學式에 있어서 무엇때문에 孝經과 論語가 教養必須로 課해졌을까 하는 것이 꼭 興味롭다. 그것은 高麗의 官學이 어떠한 意圖에서 運營되었나 하는 것을 알게하기 때문이다.

孝經과 論語는 儒敎의 倫理觀을 강조하기 爲해서 課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좀더 그 근원에 있어 이 孝經과 論語는 어떠한 意味를 내포한 倫理觀이기에 그로록 강조를 해야만 했나 하는 것이다. 알길러 말하면 여기에서 實踐倫理가 강조되어 있고 그 實踐倫理는 和合의 倫理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서 人間 상호간의 이 和合의 정신이야말로 儒敎의 專制國家로 다지어가고자 하는 精神的인 礎石이 되었던 것이다.

高麗가 儒敎의인 官僚체제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光宗때의 일이다. 그것은 科擧制의 실시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光宗이 科擧制를 실시한 것은 여러 가지 理由가 있겠지만 그 두드러진 것이 아마 豪族의 제거에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또 文臣을 登用함으로써 성공했다. 이들 文臣의 登用에는 孝라는 和合倫理가 하나의 德目으로 되어 선발의 기준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⁴⁾ 또 이것은 갈차의 高麗를 儒敎의인 國家로 바꾸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光宗때에는 아직 孝라는 實踐倫理가 보편화되지를 못했고 成宗때부터 추진되었다.

成宗은 그의 諡號와도 같이 高麗의 모든 制度를 闡發시킨 力量있는 君主

(2) 李丙淳, 韓國史 中世篇 (震壇學會), p. 239.

(3) 高麗史志 卷第28, 選舉2, 學校條.

(4) 李基白, 前揭書, p. 126.

였다. 그는 또 儒敎의 精神을 보편화시키기 위해 극력 努力한 好儒好學의 君主이기도하다. 그는 즉위 후 자주 敎書를 내리기를

- ① 聖君王則忠之始也 立身揚名顯父母則孝之終也(6年 3月敎)
- ② 凡理國家 必先務本 務本莫過於孝(9年 9月敎)
- ③ 田野愚民 尚勤思孝 搢紳君子 其念奉先 能爲孝子於家門 必作忠臣於邦國(9年 9月敎)
- ④ 知鄉魯之遺風 識父慈子孝之常(9年 12月敎)

라고 함과 同時 孝子에 對해서 포상도 했다. 이러한 孝의 권장은 穆宗 顯宗 文宗때 까지도 계속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成宗을 위시한 王들은 무엇 때문에 孝를 권장했을까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마는 孝란 和合의 倫理라는 것이다. 이 倫理觀이야말로 王을 정점으로 하는 專制國家를 이룩하는데는 아주 필한 手段이 되기도 했으며⁽⁵⁾ 또 이것 때문에 專制도 가능 했으리라고 믿어진다.

이와 같이 專制國家를 이룩하는데 필요했던 孝는 도대체 어떠한 境遇에서 發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우리가 흔히 말하는 儒敎의 實踐道德이라는 것은 親 義 別序 信을 가지고 결합시킨 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의 人倫關係를 말한다. 이 親 義 別序 信은 서로의 關係를 유지하는 절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에 의해서만이 서로의 關係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 五倫을 五常이라고도 하는 것은 이와 같은 人間關係는 불변의 절서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가지의 人倫關係에서 君臣 朋友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全部가 家庭을 中心으로한 人間關係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道德은 家庭內的 道德이 제일 중요하고, 家庭道德에 있어서는 또 父子間의 道德이 根本이 되고, 父子間의 道德에 있어서는 孝가 더욱 重大視되어 모든 德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孝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事親>이라는 말이 있다. 이 事親은 곧 父母에 대한

(5) 金哲堯·崔承老, “時務二十八條”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產業社), p. 383.

貞勞의 전부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즉 父母의 命을 받들어 父母를 위해서 勞役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⁶⁾

그러기에 여기에는 자연 服從 敬愛 奉養 養志의 제요소가 포함되어있다. 이와 같은 제요소를 포함한 孝의 기원은 일찍이 中國사람들의 특유한 思想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한다. 오늘 날과 같이 平等을 모르던 그들 中國 사람들은 命을 통제하는 원리가 貴賤 尊卑의 關係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즉 命令者와 服從者라는 關係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相關된 關係를 規定한 것이 禮이며 禮란 곧 人間의 社會生活를 규정하는 가지 가지의 形式을 뜻한다. 그래서 이 禮의 유지의 필요에서 案出된 것이 孝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이 孝는 어디까지나 上位者에 對한 下位者의 일방적인 義務의 하나로 理解하기가 쉽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孝라는 말은 매우 敬遠視되는 人間形成의 德目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⁷⁾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孝의 사상을 강조하는 일 자체에 대하여 어떤 저항을 느끼고 있으려고 본다. 그만큼 오늘날 孝의 사상은 많은 偏見과 誤解를 받고 있다.

孝의 本質은 곧 <내리사랑>이다. 지극히 子女를 사랑하고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돌보아 주었기에 그것이 다시 돌아와 <恭敬>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찍이 大載禮記에는 <父慈子孝>라는 相互間의 道德的 責任을 강조했다. 「國民教育憲章」에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라고 하고 孝에 해당하는 말을 <敬愛>라 하였다. 孝라는 말 代身 敬愛라고 한 것은 孝에 對한 일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안다.

孝가 이러한 것이라면 과연 孝經이라는 책이 이에 부합되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그 與否를 알아 보기로 하자.

Ⅳ.

孝經은 孔子와 그의 弟子인 曾參의 孝에 대한 문답을 기록한 책이다. 孝經의 편찬시기는 대개 戰國時代의 말기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孝經이 이와 같이 戰國時代라는 혼란기에 이루어 졌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 所以然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孝라는 敬愛思想으로서 上下를 結束 團結시키고 和음을 이루어 보자는 意圖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6) 津田左右吉, 儒教の實踐道德 (岩波全書), pp.15~22.

(7) 韓基彥, 韓國思想과 教育 (一潮閣), p.53.

그러면 여기에서 孝經의 내용을 더듬어 孝의 本質을 다시 천명해 보기로 한다.

- ① 先王은 지극한 德과 중요한 道가 있었다. 先王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천하를 순하게 다스렸다. 백성들이 이 두가지 법을 써서 서로 화목하여 상하가 모두 원망이 없었다.
- ② 옛날에 밝은 임금의 孝道를 가지고 天下를 다스리는데는 조그만 나라의 신하라고 해서 결코 이를 버리지 않았다. 더구나 公 侯 伯 子 男이겠느냐, 그런 때문에 天下 모든 나라의 기쁨을 사서 이것으로 그 先王을 섬겼었다.
- ③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혼아비나 과부라도 감히 이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니 하물며 선비나 백성을 업신여길 수가 있으랴, 그런 까닭에 백성들의 歡心을 얻어서 그것으로서 그 先君을 섬기는 것이다.
- ④ 집을 다스리는 자는 감히 臣妾에게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아내나 자식에게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歡心을 얻어서 그 父母를 섬겼던 것이다.
- ⑤ 푸릇 효도는 德의 근본이다.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 ⑥ 사람의 몸과 머리력과 피부는 모두 父母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孝道의 시작이며 몸을 세워 道를 행하고 이름을 뒀 세상에 드날려서 父母를 빛나게 하는 것은 孝道의 마침이 된다.
- ⑦ 孝道란 하늘의 떳떳한 것이며 땅의 옳는 것이며 백성의 행실이다. 이는 하늘과 땅의 떳떳한 것을 백성이 본받은 것이다.
- ⑧ 君子는 父母를 孝道로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임금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요, 兄을 우애로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임금에게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요, 兄을 우애로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어른을 공손하게 섬기는 것이다.
- ⑨ 다섯가지 형벌의 종류가 3천이나 되지만 여기에서 그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以上の 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하나는 孝를 德行의 근본으로, 또 하나는 孝를 政治의 道로 보았다는 것이다.

孝를 德行의 근본으로 보는 것은 모든 德行을 孝에다 從屬시킨다는 뜻으로서 孝의 實踐的의의를 강조한 것이다. 즉 정치적 身分에 의한 계급적 질서를 孝로써 整然한 體系를 세우자는 것이고, 孝를 政治의 道로 보는 것은 한 나라의 主權者가 天下에 孝를 실행케 함으로써 天下를 잘 통치할 수 있

다는 이른바 孝의 效果를 말하는 것이다.⁽⁸⁾

이것을 종합해 볼때 孝는 통치에 있어서의 <德化>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德化는 人間關係의 친밀도에 따라서 左右된다. 德化가 친밀도에 따라서 左右된다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人間關係에 介在하고 있나 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때문에 德化를 人格의 직접적인 感化라고 할 수 있다. 家庭에 있어서의 父子 夫婦 兄弟는 그 친밀도가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家안의 德化인 孝行이 가능하지만 治者와 被治者라는 국가관계에 있어서는 그 人間關係가 가정과 같이 친밀한 것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人間關係가 소원하던 질서있는 統治는 불가불 權力에 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明白한 일이다. 그러나 儒敎는 이러한 權力보다는 道德的인 政治를 따라고 있다. 이때서 <王道>라는 것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道德的인 통치는 어떠한 方法으로 해야만 가능할까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친밀도가 짙은 가정의 倫理를 國家的인 범위로 확대를 시키는데서 통치의 實効를 거두고자 했다. 여기에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演繹論理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孝를 대개조 하는 道德的인 政治의 실현은 자연 孝를 知識으로서 일반에게 교육을 시켜야만 可能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여러가지 制度가 마련되기도 한것이다. 그중의 하나가 學校의 설치이다. 孝가 하나의 知識으로 이루어 질때 孝의 原理는 尊卑의 關係 秩序의 關係·權力의 關係·命令者와 服從者의 關係에서 和合의 精神으로 結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孝는 儒敎에 있어서의 合理的인 思考方式을 낳게 했고, 또 儒敎는 齊家治國의 正道로 생각되었고 君主나 貴族들은 政治家로서의 道德的인 수양을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이래서 高麗前期의 儒敎의 理念은 聖人の 典謨 즉 經書 존중의 基반을 확립하는데 있었다고 본다. 特히 成宗代에는 詔와 敎가 많아졌을 뿐더러 周, 孔, 禮典等 經書의 인용이 많은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온 것이며 또 經學博士를 12枚에 差遣할 때의 敎書에도 “君臣父子가 모두 愛敬의 風을 알고 禮樂詩書가 經綸의 業을 創할만하며 人倫軌範과 王道紀綱이 일어남을 볼 수 있다”고 한 것등은 多分히 尊經的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先聖의 典謨를 忠孝

(8) 鄭璣, 孔子思想의 人間學의 研究 (東國大學校 出版部) p. 338.

라는 기준에서 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V.

以上으로 孝經을 中心으로한 高麗의 儒敎理念을 알아보았다. 다시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 보면,

孝는 곧 “내리사랑”으로 이의 實踐에는 雙方的 道德的인 責務가 이루어지는데서만 可能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誤解하고 있듯 下位者의 一方的인 責務는 決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서 孝를 敬愛라는 말로도 表現되다고 했다.

雙方的 責務는 사랑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대서 옛 古典에도 「父慈子孝」라고 해서 먼저 아버지의 慈情이 있는 다음 아들의 孝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慈니, 孝니 하는 것은 責務의 성격을 區分한 것이지 그 本質을 달리한 것은 決코 아니다.

이와 같은 孝는 먼저 親密度가 깊은 家庭에서 먼저 이루어 진다. 그 理由는 사랑의 농도가 家族이 제일 길기 때문이다. 이러한 孝라는 사랑은 人間關係의 和解를 가져오게 한다.

高麗는 儒敎的인 集權體制로 指向했다. 이 集權體制의 指向에는 무엇보다도 上下의 結束이 急先務이기 때문에 孝의 要請이 正比例된다. 이대서 이 孝의 普及을 위해 孝에 對한 知識이 필요되어 여기에 그 敎育을 위한 學校가 作設되기도 했다. 高麗는 官學인 國子監에 孝經을 必須로 해서 治者의 政治道義를 習得케 했던 것이다.

이러한 孝經은

「善事父母爲孝니 人之行이 莫大於孝러 堯舜은 大聖人也시되 其道는 不過孝悌而已시니 禹湯文武周公이 傳之하시고 孔子一以此道하시니라 此書는 乃曾子聞於孔子하시고 而曾子門人이 又以所聞於曾子者로 舍而記之하여 以爲一經하니……」⁽⁹⁾

와 같이 孔子와 그 弟子에 依해서 더욱 闡明되었다. 孔子는 “吾道一以貫之”라고 해서 孝에 立脚한 그의 實踐道德을 強調했었고, 또 曾子는 스승의 道統을 實質的으로 이어 받아 後世에 傳授했다.

曾子는 “사람들이 노상 배우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는 自然의 情의 極致란

(9) 孝經集註 (世昌書館), 序言.

親喪을 當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없다”(10)는 것이니, 이는 曾子 自身の 立場에서 立體的으로 認識한 道德의 發露라고 할 수 있다. 대저 아버지의 죽음에 즈음하여서는 어떠한 無知無學한 耄라도 自然發露의 哀戚의 情의 極盡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禮儀教化 以前의 問題로서 道德의 自覺으로도 미칠 수 없는 至純至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孔子가

“充滿이 있어도 가득차 있는척 하지않고 充實해도 명미어 있는양하며, 지나쳐도 미치지 못하는양한은 先王도 이를 어렵다고 했다. 넓게 배우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모습은 공손하고 그 德은 돈독하며 그 사람에 말함에 있어서 믿음직스럽지 않음이 없고, 그 사람에게 驕함에 있어서 항상 浩浩하다. 이 때문에 耳目을 누렸다. 곧 이것이 曾參의 모습이다.”(11)

라고 하던 曾子는 감추어진 謙讓속에 凜然히 서고, 斷乎하게 나아가고, 毅然히 간직하는 孝의 態度를 그의 本來的인 使命으로 했다.

이러한 曾子의 態度는 孔子가 늘 말한 “忠信을 주로 삼으라”(12)느니 또 “人而無信 不知其可也”(13)느니, 書經에서 말하는 “이것이야 함된 孝道로다. 그 한 사람이 孝行이 나아가서는 집안 全體에 좋은 영향을 미쳐 兄弟間에 友愛의 情을 불리 일으키고, 더 멀리는 한 나라의 治政에도 파급적인 影響을 끼치고야 마는 結果가 될 것이다”(14)는 것을 實踐했기 때문이다.

孔子로부터 孝 悌 忠 信의 四德 곧 “參中夫四德者也”라고 일컬어진 曾子는 眉壽를 누리며 實踐과 教理의 兩面에서 孔子의 思想을 主體化시키고 또 이를 教育의 現場에 具體化시키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한 門徒인만큼 그의 君子다운 理想의 人格의 實現은 當然한 歸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孔子의 中心思想을 찾아 이것이 孝와의 關聯을 살펴보기로 한다. 孔子의 思想의 中心은 仁에 依한 德治主義를 들 수 있다. 德治主義는 곧 民主主義를 말한다. 古代의 專制君主制 또는 貴族政治는 主權在民이 아닌 代身에 그와 맞서는 政治效果를 올리기 爲해서는 治者의 下向式 溫情主義 또는 寬容心과 憐愍心이 必要條件이 되었었다. 民主制 以前의 制度的 결함을 除去하기 爲해서는 오로지 爲政者 自身の 百姓을 생각하는 愛民思想

(10) 曾子曰 吾聞諸夫子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論語, 子則問)

(11) 孔子家語, 弟子行 卷 12, 參照.

(12) 論語 (學而篇).

(13) 論語 (爲政篇).

(14) 書經의 말은 周書의 君陳篇에 보일.

과 그 人間的 純粹性의 回復에 依한 民心에의 接近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政治道德이었다. 爲政者의 人類愛的 民族愛的인 博施, 또는 施與는 福祉社會的 完全國家 건설의 要請事項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이러한 孔子의 德治主義는 孝經을 냥케 했고 孝經의 精神은 儒敎的인 國家건설에 있어 基本된 政治觀이 되기도 했다. 高麗가 儒敎的 國家건설을 爲한 作業의 하나로 官學인 國子監에 孝經을 必須로 했음은 위에서 言及하였지만, 그와 같은 政治經綸이 成宗때에 더욱 추진되었다는 것도 말한다. 成宗代의 이러한 政治經綸은 成宗自身의 政治倫理에도 기인 하지만은 成宗을 보좌하는 爲政者들에 依해서 더욱 提進되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그 事例를 들면, 첫째로 成宗 9年의 金審官이 올린 封事 六條敎를 들 수 있다.⁽¹⁵⁾ 六條敎의 內容은 ① 察民庶災蓄災蠲者, ② 察愚授長吏以上居官政者, ③ 察盜賊民之害及大奸猾者, ④ 察田犯律四時祭者, ⑤ 察民有孝悌廉潔行修正茂才異嘗, ⑥ 察吏不溥入錢穀故散者로 되어있다. 이 六條敎에 보이는 바와 같이 高麗의 爲政者는 오직 憐愛爲主의 博施가 中心課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註보거 代身함

(15) 高麗史, 成宗世家 5年條.

The Official Academy and the Filial Canon (*Hyo-Kyung*) in Korea Dynasty

Jun, Joon-Woo*

[Abstract]

In Korea Dynasty, the authority all officers a compulsory obligation to learn the *Hyo-Kyung* under the custody of a supervisor of Letters who was the responsible officer to train civil servants.

The *Hyo-Kyung* was possible to interpret the pious love of civilians to their elders as a mutual ethics between the parental benevolence and the filial piety of inferiors which was far superior to the traditional ethics that was laid on an firm obligation of inferiors to their elders.

The filial piety as a love for elders means a mutual harmony and shows a benevolent conduct as an influence of a political morality.

The benevolent conduct was developed as a political morality of Confucius originated from the filial piety of Confucius based on a moral policy.

Such a benevolent conduct is to become a main spring to effect a mutual tie between the king and his people as a national system of the Confucian theory.

In Korea Dynasty, the authority had arranged all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e thought of filial piety since Sung-jong, the King as a pursuing power of bureaucratic system of Confucian theory.

* Chief Librarian, Hyoseung Woman's College.